

북카페서 책 팔면 불법...규제에 갇힌 숭인숍

(Shop-in-Shop)

식약처 등 행정편의적 일괄 규제...창업 열기에 찬물

업종별 위생·안전 기준 선별 적용 등 방안 마련돼야

“숭인숍(Shop-in-Shop)은 요즘 대세 아닌가요. 커피와 꽃을 같이 판매하는 숭인숍에서 매장을 서로 구분하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남구 제석동에서 2년째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39)씨는 정부의 지나친 숭인숍 규제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음료와 꽃을 함께 판매해 상호 시너지 효과는 물론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강력한 정부의 규제에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소식에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북카페 창업자들도 고민이 많다. 북카페에서 책 권권이라도 팔 경우엔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책을 팔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규정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책을 파는 구역과 카페 구역을 칸막이로 완벽히 구분해 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이 15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둘로 쪼개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나 가게운영에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장기적인 불황에 청년창업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숭인숍 창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법제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이 빈번한 식품관련 업종은 사실상 숭인숍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리시설 및 커피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공간은 다른 업종과 사방이 칸막이로 구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타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칸막이로 커피숍과 완전히 분리를 시킬 경우에만 숭인숍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식약처의 행정편의적인 일괄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으며, 복합매장 업종별 위생·안전 진단을 통해 선별적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커피숍이나 서점 등 모든 업종에 대해 행정편의적으로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규제라는 것이다.

업계는 국내에 약 1500개 이상의 숭인숍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량의 물건을 팔고 있거나 타업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숭인숍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과 다른 제품을 함께 팔다보면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음식을 섭취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에 소상공인에 한정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식약처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조계현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은 “숭인숍의 경우 청년·서민 창업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검열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위생·안전 진단을 통해 선별적 규제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7.81 (+11.60)
- ▼ 금리 (국고채 3년) 1.80% (-0.01)
- ▼ 코스닥 726.01 (-0.21)
- ▼ 환율 (USD) 1133.79원 (-2.80)



한강 '세빛섬' 방문 100만명 돌파

한강 인공섬인 세빛섬의 야경.

효성 운영...수상레저 등 인기

효성이 운영하는 서울 한강의 인공섬 '세빛섬' 방문객이 지난 7월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세빛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평일 4500명, 주말과 공휴일 1만명 수준으로, 세빛섬 내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가 방문객의 발길을 끈 것으로 보인다. 세빛섬엔 채빛퀵진 등 기존 식당 외

에 지난 5월 세빛 랍스터와 디저트 카페 세빛 돌페가 새로 문을 열었다. 또 신개념 수상레저보트 튜브스타도 즐길 수 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는 세빛섬 야외무대인 예빛섬(미디아트갤러리)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세빛섬 문화의 날'로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 등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유명 작품이 상영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최저 월급 126만270원

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장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위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

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리수 인상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위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 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4년 연속 '한국서비스 대상'

금호고속이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고속버스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 4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이다.

금호고속은 '고객행복경영'을 통해 타 운송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현장60' 활동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매일 60분씩 영업 현장에서 직접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했다. 또 전 차량에 차선이탈 및 차간거리경보장치를 설치해 운행 중 사고를 막고,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에 앞장섰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서비스대상은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개인을 포상하는 제도다. /임동률기자exian@



삼성전자 광주U대회 선수 유니폼 교환 이벤트

삼성전자가 지난 7월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삼성전자 체합관(Samsung Athletes Meet)'에서 '서로를 빛나게 (You Light Me Up)'라는 응원 캠페인의 하나로 유니폼 교환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국적과 종목의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해 서로 유니폼을 교환하고, 응원 메시지 영상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삼성전자 제공>

기아 쏘울·스포티지 미국 고객만족도 조사 '품질 1위'

건설업업체 6만6000명 설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과 스포티지가 미국의 자동차 건설업 업체 조사에서 차급별 품질 1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월 기아차 K9과 K7, 쏘울, 스포티지와 현대차 쏘나타 등 5개 모델이 미국의 자동차 전문 건설업 업체인 오토퍼시픽이 발표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차급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1위를 차지한 차량은 ▲고급차 부문의 기아차 K9(현지명 K900) ▲대형차 부문 기아차 K7(현지명 카렌자) ▲중형차 부문 현대차 쏘나타 ▲소형차 부문 기아차 쏘울 ▲소형 크로스오버SUV 부문 기아차 스포티지 등이다.

특히 고급차 부문 1위인 K9은 809점으로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가 받은 점수(794점)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점을 기록, '프레지던트 어워드'를 받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올해로 19년째인 오토퍼시픽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9~12월 신차를 구매한 6만6000명을 대상으로 50개 항목에서 274개 모델의 만족도를 평가해 각 차급별로 만족도가 높은 22개 모델을 선정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J.D.파워가 지난달 발표한 2015년 신차품질조사에서 각각 일반 브랜드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혁명! 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요일, 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